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11월

전문가 기고

기업을 넘어, ESG를 위한 사회의 책임과 성찰

주요 이슈

ESG 채권시장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ESG 동향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韓美 제도 비교

주요 통계

기업을 넘어, ESG를 위한 사회의 책임과 성찰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용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경영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매김해왔지만, 지금 좋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마음을 다할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런 리더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여러 제안이 가능하겠지만, 경영자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조망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수 있다. 사회가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경영자도 사회에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상호호혜의 원칙이 작동하길 기대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바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경영자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공정한 믿음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진행된 조직 공정성 연구는 조직이 공정하지 않을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지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조직이 불공정하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성의 맥락을 조직에서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기업 경영 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도시’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기업을 위한 그 사회의 역

할이 강조됐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 경영을 위한 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관점을 뛰어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좋은 나라’, ‘ESG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좋은 나라’와 같은 사회적 관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분명,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경영자가 사유할 수 있는 책임과 공동체 의식은 다를 것이다. 적어도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경영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도구적 관점, 측정의 문제로만 환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은 기업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문제에 대해 모든 시선이 기업에 쏠려 있는 지금, 우리는 기업이 사는 세상,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정함’은 MZ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전 세대의 염원이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공정함을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혼자서 공정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할 수 있을까? 한 사회를 넘어 세계가 공동체의 미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업에 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경영자에게 어떤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제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의 구성원이 경영자에게 기대를 전달하거나 당부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가 정의롭고 공정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서야 사회는 기업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중도 나오고 때로는 다그칠 수도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SG 채권시장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민경희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로써 금융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① ESG 투자 동향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이어지는 등 탄소중립 시계가 가속화되면서, 저탄소 기술 및 인프라 투자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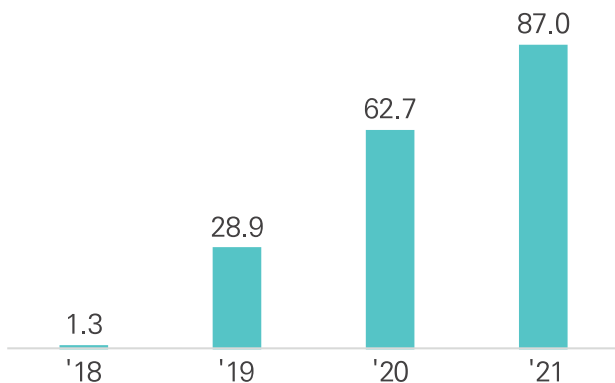
그간 ESG 투자는 '지속가능성'을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했다는 점, 기업의 ESG 관련 투자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여타 상품에 견주어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이 시장에 공유되면서 성장해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ESG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발행 규모가 '18년 1.3조원에서 '19년에는 28.9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년 62.7조원, '21년 8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해당 기간 전체 채권 발행 증가폭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수준으로, ESG에 대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금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강도 긴축 등과 함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도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ESG 채권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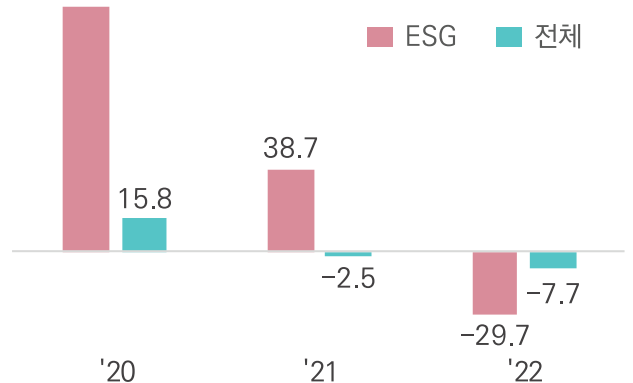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인포맥스

채권 발행 증감률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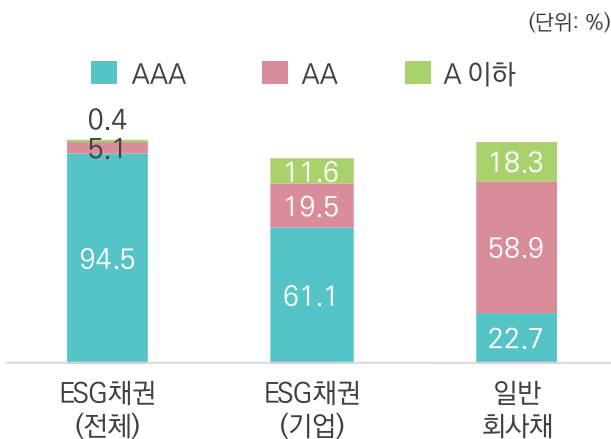
주: '22년은 1.1~11.3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② ESG 채권 구성

국내 ESG 채권을 발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20년까지는 공사·공단 비중이 85% 이상에 달했다. 이는 기존 발행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택금융공사의 MBS 등 공기업의 특수채들이 ESG 인증을 받아 ESG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1호).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ESG 평가와 공시가 점차 강화되면서 ESG 경영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관련 자금 수요도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ESG 채권 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발행된 ESG 채권들 중 대부분은 신용등급 AA급 이상의 우량채로 이루어져있다. 발행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해보면 동 비중은 약 80.6%가 되며, 그 중에서도 최우량등급인 AAA급은 61.1%에 이른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회사채시장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AAA급 최우량채 집중도는 ESG 채권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신용등급별 ESG 채권 구성



주: '22.1.1~11.3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③ 지속가능 연계채권(SLB)

저탄소화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ESG 채권시장에서 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SG 채권의 경우 자금의 용도를 적격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있는 등 발행 요건이 까다롭고, 조달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해외 시장에서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이 대표적인 ESG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LB는 기존 ESG 채권과 달리 기업이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만기 등 조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ESG 경영에 나설 유인이 있고, 기존 ESG 채권이 가지는 그린워싱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SLB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발행 실적은 없는 상태다. 시장 발전 초기 단계에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SLB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후 검토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SG 채권과 SLB

	ESG 채권	SLB
자금 용도	녹색분류체계 등에 부합하는 적격 프로젝트	제한 없음
금리 등	발행사 신용등급,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	사전에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 달성여부에 따라 변동
사후 보고	자금집행 및 보고	지속가능성목표 달성 및 보고 *외부기관 검토 의무

자료: 한국거래소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韓 · 美 제도 비교



신새미 연구원

국제 협약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이하 HFC)류에 대한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이 요구된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오존층파괴물질은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 유발 잠재력이 높아 교토 의정서상 온실가스로 분류되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의 발효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소비가 규제되었고 수소불화탄소(HFC)가 대체 물질로 사용됐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의 수정안인 키갈리 개정서(Kigali Amendment)가 수소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① 미국

'22년 9월 21일 미 상원이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12월 제정된 혁신 및 제조법(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of 2020, AIM)에 따라 HFC의 생산과 소비를 큰 폭으로 감축하고자 한 바 있다. 이번 비준으로 미국은 관련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제조업 고용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

국내에서는 10월 11일 HFC 감축을 목표로 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2024년부터 관련 소비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특정물질'의 범위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HFC를 제2종으로 구분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인 HFC에 대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감축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중유(HFO) 등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2019년부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2011~2013년 평균 소비량의 85%를 줄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 등 137개 개발도상국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2020~2022년 평균 소비량의 80%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개정서 비준 국가는 '22년 10월 기준으로 총 198개국 가운데 미, EU, 일본, 그리고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에 달한다. 키갈리 수정안이 이행되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0.5℃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국가별 HFC 감축 계획

구분	개도국 그룹 1		개도국 그룹 2		선진국	
국가	한국 및 그룹 2에 포함되지 않는 개도국		GCC 국가,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	
기준 수량	'20~'22 HFC 평균 소비량 + HCFC 기준 수량의 65%		'24~'26 HFC 평균 소비량 + HCFC 기준 수량의 65%		'11~'13 HFC 평균 소비량 + HCFC 기준 수량의 15%(25%)	
감축 일정	동결	'24	동결	'28	10% 감축	'19
	10% 감축	'29	10% 감축	'32	40% 감축	'24
	30% 감축	'35	20% 감축	'37	70% 감축	'29
	50% 감축	'40	30% 감축	'42	80% 감축	'34
	80% 감축	'45	85% 감축	'47	85% 감축	'36

자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ESG 통계 지표

2022년 11월 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151	162	172	183	186	188	199	203	201	200
사회적채권	794	820	835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지속가능채권	230	233	237	246	279	304	305	309	308	309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156	168	173	183	185	186	191	194	193	193
사회적채권	1,273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지속가능채권	175	181	182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 ESG 평가

KCGS ESG 통합등급 현황

(단위 : 개사)

등급		S	A+	A	B+	B	C	D	합계
기업수	'21	-	12	170	134	209	225	12	762
	'20	-	16	92	133	257	235	22	755
증감률(%p)		-	△0.5	10.1	0.0	△6.6	△1.6	△1.3	0.9

자료 : 한국ESG기준원

3. 기타 통계

MSCI 글로벌환경지수 수익률('22.10.31기준)

(단위 : %)

구분	1 Mo	3Mo	1Yr	YTD	연간 기준		
					3Yr	5Yr	10Yr
MSCI Global Environment Index*	-6.26	-19.62	-34.21	-30.47	18.78	12.38	12.45
MSCI World ESG Leaders Index**	6.73	-8.00	-20.37	-21.78	6.30	7.00	9.56

* 전체 수익의 최소 50% 이상이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인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 23개 선진국내 중대형 기업중 ESG성적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8월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9월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10월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전과 기회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11월	ESG 채권시장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ESG 채권시장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민경희 연구위원

T. (02)6050-3137 | E. kmin@korcham.net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韓·美 제도 비교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

ESG 통계 지표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